

국제스포츠행사의 테러행위 대책

조 광 래*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국제스포츠행사시 주요테러사건 사례 |
| II. 이론적 배경 | V. 테러가 국제스포츠행사에 미치는 영향 |
| 1. 국제스포츠행사의 개념 및 특징 | VI. 대 책 |
| 2. 테러의 개념 | VII. 결 론 |
| III. 국제테러정세 | |

I. 서 론

스포츠는 건강 및 체력 육성이나 대중문화 및 위락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사회제도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사회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각 국가들도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스포츠의 도구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 국제스포츠행사의 유치 및 개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스포츠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편승해 국가별로 국제스포츠행사의 정치선전 도구화, 국가분쟁 야기, 정치적 시위 등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테러문제도 국제스포츠행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을 악용,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협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유치하는 국제스포츠행사는 그 규모나 참가단의 측면에서 많은 국가가 관련될 수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국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한다는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점차 국제행사를 유치하였을 경우에 있을 경제적 부가가치의 효과를 노리고자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생산유발 효과를 11조5천억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타 유·무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이러한 국제 스포츠행사에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 각 국의 응원단 및 관광

* 대불대학교 경호경비학과 교수

객뿐만 아니라 각 국의 지도자급 VIP와 기자단 등 세계 여론 주도층이 주최 국가로 몰려 들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테러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테러리스트들에게 있어서 국제스포츠행사는 아주 좋은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주의·주장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국제테러조직들은 과거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를 계기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사건을 수없이 자행해 왔음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행사에는 언제든지 테러조직의 개입이나 테러공격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테러에 관한 연구는 그간 공안행정의 일환으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에 이어 '2002 월드컵대회 등 국제스포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행정학·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제행사에 대한 연구도 관광학·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체육학계에서는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역사적, 행정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테러발생 및 대책에 대한 역사적 연구나 사회학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여러 학제간 학문적 성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련 연구도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테러사례들 중에서 국제스포츠행사와 관련된 테러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스포츠와 관련된 테러사건 발생의 경험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및 국제적으로 발생된 스포츠테러사건 중에서 의미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테러의 발생 유형과 연도별 발생현황, 지역적 발생현황 및 이를 위해 국제스포츠행사 및 9.11테러사건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테러 개념을 재정리하고 최근 일련의 국제테러정세를 고찰한 후 국제스포츠행사와 관련해 발생한 각종 테러사례와 각 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스포츠행사의 개념

1) 국제스포츠행사의 정의

국제스포츠행사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스포츠행사의 상위개념인 국제행사의 경우도 국제회의와 국제대회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개념정립 없이 국제회의와 국제대회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행사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지금까지 제시된 국제행사의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행정자치부(1994)는 국제행사를 크게 국제회의와 국제행사로 구분되는데 스포츠행사를 국제행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학계나 실무에서는 국제회의라는 용어에 통상적인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안경모·김영순(1992: 18)은 “각국 정부의 국제회의 전담기구에서는 국제회의 사업의 중요성 및 효과를 깊이 인식하고 각종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같은 범위에 속하는 전시회, 박람회, 학술세미나,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등의 유치에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승이·한광종(1995: 19)은 “국제회의란 통상 공인된 단체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여 3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를 의미하기도 하며, 국가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상호 정보 및 자료의 교류를 도모하며,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대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1994)도 “국제회의는 국내·외 특정인들이 특정목적으로 모여 관련된 문제를 심의, 토의, 결정할 목적으로 사전에 결정된 일정에 의해 진행되는 공식적인 회의나 전시, 이벤트 등을 수반하는 일련의 집회를 총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2-1> 국제행사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국제회의	광범위한 또는 특정문제에 대한 일반토의를 위한 회의	유엔·전문기구 총회
	각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구속적 권고를 행하는 회의	유엔·전문기구 회의
	각국 정부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행하는 회의	예산·분담금배정회의
	정부간 기구의 사무국 또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지시 목적 회의	정부간 기구이사회
	조약문 또는 기타 정식 국제문서 작성·채택을 위한 회의	유엔 해양법회의
	국제적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원자력 유엔총회
	국제적 사업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 보증회의	분담금 보증회의
국제행사	학술연구대회 전문분야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토론	국제학술대회
	스포츠대회 : 대한체육회 소속 각 경기연맹 또는 협회에서 개최한 국제경기대회	올림픽·월드컵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분야 진흥 목적 각종 국제행사	아시아·태평양영화제
	국제전시회 : 국제공인 전시회, 신제품 전시·홍보행사	세계무역박람회

지금까지의 국제회의에 대한 국내·외 개념정의 및 분류는 <표2-1>과 같다 (유정남,

2000; 정호선, 1999: 6-7).

이상과 같은 국제행사의 정의를 통해 볼 때 국제스포츠행사란 “국제스포츠기구 또는 해당 국가의 체육전담기구 주도하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2개국 이상의 스포츠대표단이 참가하여 스포츠경기를 통한 선의의 경쟁과 상호우의를 도모하는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국제스포츠행사의 기능

국제스포츠는 평화와 적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국가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국제 공동체의 양극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국제스포츠 경기는 국제 이해 및 우호적 관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하며 참가국 간의 불화를 야기하거나 적대감을 증대하여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교류는 크게 무역교류, 과학교류, 예술교류, 종교교류, 문화교류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문화교류는 국가의 전통문화 교류를 예로 들 수 있으나 스포츠의 경우는 앞서 열거한 제반 교류보다도 원천적이며 선도적인 대외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는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권오인, 1988: 5-13).

<표2-2>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정의 분류

구 분	정의내용	참가국수	참가자수	참가자중 외국인수	기 간
새우리말 큰사전	국제적 이해사항을 심의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나라의 대표자에 의해서			
한국관광공사	국제기구본부에서 주최 하거나 국제단체가 주관 하는 회의	5개국이상		100명이상	3일이상
관광진흥법 (제18조)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 하는 국제회의(세미나· 전시회 등 포함)	2개국이상	100명이상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 (ICCA)		4개국이상	100명이상		
아시아국제 회의연합 (AACVB)	국제회의 : 2개 대륙 이상에서 참가하는 회의 지역회의 :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는 회의				
국제회의연합 (UIA)	국제기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	5개국이상	300명이상	40%이상	3일이상

국제스포츠행사의 순기능적 기능은 첫째, 모든 국가들은 국제스포츠행사를 통한 국위선양을 추구한다. 둘째, 스포츠 자체가 상호 경쟁적인 대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친선을 도모하며 긴장을 완화시킨다. 셋째, 양국관계 정상화의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간 외교적 승인의 기능을 한다.

반면, 국제스포츠행사의 역기능으로는 첫째, 전통적인 스포츠 이념에서 벗어나 국제스포츠행사를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이용한다. 둘째, 자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려는 의욕이 고조되면서 국가분쟁이 야기된다. 셋째, 국제스포츠행사를 자국의 정치적 시위의 場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국제스포츠행사의 역기능은 모든 국가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국가가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스포츠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정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국내문제를 반영하는 사회·정치적 반사경이다. 셋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국가 선전의 장이다. 넷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국가의 침략적 공격성의 배출구이다. 다섯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국가 경제력 공개의 터전이다. 여섯째, 국제 수준의 스포츠는 민족주의의 진원이다 (임번장, 2000).

3) 국제스포츠행사의 특징

국제스포츠행사는 다른 행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운집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유세나 종교적 모임, 기타 연말연시 행사 등에도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공간인 운동장이라는 장소에 수 만 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국제스포츠행사만의 특징이 있다. 둘째로 세계 각 국의 응원단, 관광객, 기자단, VIP 등이 모인다. 요즈음의 국제스포츠행사는 자국의 정치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고전적 의미에서 경제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큰 요인으로서 작용하여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한 국가는 보다 많은 관광객과 응원단을 유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국의 스포츠에서의 성적보다는 스포츠행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의 얻었는가가 그 행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한 국가는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세계에 홍보를 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과 응원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스포츠행사에는 선수촌과 여러 경기장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경비구역이 분산되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경기로 인해 치안책임 담당 부서로서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으로 대두된다. 넷째로 다양한 국가의 참가이다.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념적 등으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있는 참가국 선수단 및 응원단뿐만 아니라 개최 국가 내부에서도 서로간에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 테러의 개념

1) 테러의 정의

테러 또는 테러리즘이란 원래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극단적 공포' 또는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의 행사 혹은 위협'이라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테러에 비해 좀 더 포괄적·조직적·이념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 테러리즘을 줄여 테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도 별로 구분없이 쓰고 있다 (David F. Forte, 1986: 39-51)

테러의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1789~1794년 사이의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Reign of Terror)때이다. 구체적으로 1793년 5월에서 1794년 7월까지 자코뱅(Jacobin)당의 독재자 Loevis Pierre가 혁명후 반대세력을 다스리기 위하여 콩꼬르드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혁명재판으로 많은 사람의 목을 자른 공포(terroure)에서 처음 쓰여져 집권 정부의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김찬규a, 1987: 7). 이와 같이 초기에는 테러란 용어가 공권력에 의한 테러(State Terror)만을 의미하였으나 그후 의미가 변경·확대되어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에 의한 행위에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양희철, 1998: 7).

각 국가별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가정보원, 2002; 신경엽, 1998; 이영래, 1998).

<표2-3> 국가별 테러의 정의

구 분	정 의
미국 국무부	국가단체에 이르지 못한 단체나 국가의 비밀요원이 보통 다중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전투 목표물에 대해 자행하는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
미국 중앙정보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분쟁의 한 형태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적, 독단적, 비도덕적인 폭력
독일 헌법보호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에 명시된 중범죄 행위(살인·납치·방화·폭파 등) 또는 그 예비행위를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전투
한국 행정자치부	테러라 함은 테러분자 등이 각종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대통령훈령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① 국가요인 및 그 가족의 납치·암살 ②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폭파 ③ 해외체류 외교관·유학생·상사원·취업근로자 및 해외 여행자 등의 납치·암살 ④ 국가 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및 재외공관 등에 대한 공격 ⑤ 국내 정계·재계 등 각계 주요인물의 납치·암살 ⑥ 주한 외교사절 및 체한 외국저명인사의 납치·암살 ⑦ 폭발물·총기류·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무차별 인명살상 ⑧ 기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 범법행위
한국 국가정보원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이와 같이 현재 테러의 개념은 '정치적(이념적) 폭력'으로 정의되나 이념대립, 종교·민족갈등,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많은 개념으로 각 국의 이익과 대테러활동 목적 또는 학자들의 테러현상에 대한 연구·접근방법에 따라 상이한 시각 속에 나름대로의 개념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테러'란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폭력'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테러행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규탄 받을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자유전사들의 영웅적 행위로 칭송되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테러'의 개념정의는 없으나 학자들의 앞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둘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 셋째, 심리적인 충격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소기의 목표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다섯째,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자국의 국익'을 고려한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나 우방국들의 보편적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화 추세 및 국내테러 위협요소의 증가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인사·시설에 대한 위해에 대

비하기 위해 테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테러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 또는 어떤 국가의 비밀공작원이 그 목적 달성 또는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투 요원인 타인의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하고자 사용하는 계획적인 폭력행위”이며 국제테러란 “테러의 목적·수단·준비·실행주체 등이 2개국 이상의 국민이나 지역에 관련된 테러”를 말한다.

2) 테러의 종류

테러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인 만큼이나 테러의 종류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테러의 일반적인 분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테러행위 자행단체의 성격에 따라 중남미형, 민족분리주의형, 북미형 ‘뉴레프트’, ‘카를로스’ 사단, KGB그룹, 범죄 및 광인형 ‘테러그룹’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Peter St. John, 1981: 2-3). 국가개입여부에 따라 國家間테러리즘, 國內테러리즘, 超國的테러리즘, 國家테러리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주체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테러리즘”(피지배계층에 의한 테러)과 “위로부터의 테러리즘”(권력자에 의한 테러)으로 구분하면서, 또 다시 그 동기에 따라 광인형, 범죄형, 순교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8; 고두화, 1992).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분류방식은 탈냉전체제 및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와서는 이념적으로 대립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존립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테러를 자행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테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유형의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다.

테러의 실무적인 분류는 크게 발생지역, 공격형태, 사용무기, 대상, 목적 등으로 구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테러 대응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형근, 1992; 신경엽, 1998; 주일엽, 2000). 테러발생지역은 전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케냐 몸바사에서 발생한 호텔과 민간항공기에 대한 동시 테러 사건을 볼 때 이제 지구촌 어느 지역도 테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공격형태는 폭파, 무장공격, 암살, 인질납치, 방화, 항공기납치 등으로 구분되며 폭파·무장공격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무기는 총기류, 폭발물, 포탄, 화염병, 도검류, 우편폭탄, 화학무기, 수송수단 등이 있다. 대량살상을 위해 폭발물, 화학무기, 수송수단 등을 이용하고 있고 로켓포, 우편폭탄, 독가스과 같은 화학무기 등도 사용하여 점차 첨단기술화 하는 경향이 있다. 테러대상은 민간인, 군·경, 정치인, 공공

시설, 정부관리, 차량선박, 항공기, 외교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지하철역, 고층건물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특정인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테러목적별 종류는 반정부투쟁, 보복, 분리독립, 사회혼란, 요구관철, 종교투쟁 등이 있으며 과거 냉전시대에 많이 발생하던 이념성 테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의 테러양상은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살상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테러분자들이 자신의 명분과 조직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밝혀 왔으나 최근에는 범행후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익명의 테러가 증가되어 새로운 차원의 테러리즘이 등장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김찬규b, 1999: 29-41).

III. 최근 국제테러정세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테러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치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테러양상은 대중의 지지 획득, 조직세력의 과시,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선전 등과 같은 고전적인 전투방식에서 탈피, 인명살상과 대량파괴를 노리는 준전투적 파괴행위로 변화하고 있다 (주일엽, 2000).

2001년 9월 11일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의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자행된 동시다발 테러는 항공기 납치 자살공격이라는 초유의 수법과 무차별 대량살상이라는 '뉴 테러리즘'의 등장을 알린 사건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구조건과 공격주체를 밝히지 않고,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테러조직이 그물망 조직으로 운영되고 지능화 되어 무력화가 곤란한데다 인명피해 극대화를 위한 신종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에 이용되는 등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테러가 과격화, 대형화, 극대화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테러불감증으로 그 동안 크고 작은 테러사건을 많이 접하여 통상적인 테러사건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테러가 대형화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둘째, 테러범들이 정치적인 협상을 처음부터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테러사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국 지도자들이 테러범과 협상을 벌이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테러범들은 무차별 대형 살상을 자행하여 상대측 지도자에게 무력감이나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테러단체들이 점차 소수화되고 사상 자체가 점차 극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가

평화무드에 접어들게 되자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테러단체들은 점차 세계의 큰 흐름에 고립되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과격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넷째, 냉전이후 국가간의 왕래가 용이해지고 물자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테러에 사용되는 인적자원의 충원과 물적자원의 조달이 쉬워졌다는 점도 테러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9.11 테러사건은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정도로까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는 테러국가와 대테러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테러국가는 국제적 테러발생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아래 테러 지원국가인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경고하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 개발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테러 집단의 테러자행 양상도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0월에 약 1주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와 필리핀 폭탄테러에 이어 2002.11.28에는 그 동안 내전 이외에 국제테러 발생의 빈도수가 적었던 아프리카 케냐 몼바사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양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케냐 몼바사에서의 테러는 민항기에 대해 지대공 미사일인 견착식 러시아제 스트렐라2(일명 SA7)로 알려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9·11테러 이후 미, 영,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군사시설, 외교공관, 주요 비즈니스 및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테러 집단들은 호텔, 쇼핑센터, 관광지 등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경비상대가상대적으로 허술한 목표물들을 노린다. 이런 목표물들은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바로 발리테러가 발생한 나이트클럽이나 예멘 근해를 향해하던 프랑스 국적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케냐에서의 동시테러도 좋은 예다. 테러 집단들이 이러한 호텔, 나이트 클럽 등 연성목표물(Soft Target)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테러 담당 부서는 대응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서 대테러 대응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3-1>에 연도별·유형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을 정리하였다 (경찰청, 2001).

<표3-1> 연도별·유형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519	375	468	426	435	458	506	429
폭 파	153	110	157	172	174	172	205	223
무장공격	225	153	156	151	167	207	188	113
암 살	29	42	77	56	41	38	49	45
인질납치	28	28	28	26	23	26	50	32
항공기납치	26	20	10	8	7	4	6	9
기 타	58	22	40	13	23	11	8	7

IV. 국제스포츠행사시 주요 테러사건 사례

1. 주요 테러사례

국가차원에서 유치하는 국제스포츠행사는 그 규모나 참가단의 측면에서 많은 국가가 관련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참가단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행사라면 국제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대한 관심과 자기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본다면 국제테러조직들의 매우 양호한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주의·주장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에 좋은 기회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국제테러조직들은 과거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사건을 수없이 발생시켜 왔음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행사에는 언제든지 테러조직의 개입이나 테러공격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 기습테러

국제스포츠행사시 테러사례는 1972년 9월 5일 검은 9월단에 의해 저질러진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 기습테러사건이 그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PLO산하 검은 9월단 8명이 이스라엘선수들이 체류하고 있는 선수촌을 기습하여 선수 및 임원들을 인질로 억류하여 서독정부 및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들의 동료 석방을 요

구하며 대치극을 전개하였는데 서독정부의 인질구출작전 실패로 선수 및 임원과 서독 대 테러특공대 요원 등 모두 1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同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경기중반을 넘어서던 1972.9.5 올림픽 사상 최대의 비극이 터졌다. 팔레스타인 게릴라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들은 이날 새벽 선수촌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이스라엘 선수들의 숙소를 습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선수 가운데 1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10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이스라엘에 억류중인 팔레스타인 정치범 2백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주최국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직접 협상에 나섰다. 경기는 중단되었다. 아랍 게릴라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인질 10명을 헬리콥터에 태우고 그날 저녁 뮌헨공항으로 장소를 옮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트 비행기로 이집트로 떠나겠다고 버티었다. 그러나, 뮌헨공항에 잠복해 있던 서독 무장경찰은 아랍 테러범들의 헬리콥터에서 내려 대기시켜 놓은 제트비행기로 갈아타려는 순간 총격을 가했다. 쌍방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테러범들은 수류탄으로 헬리콥터를 폭파시켰다.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선수와 임원 11명, 아랍 게릴라 9명, 그리고 서독 경찰 1명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됐다. 이튿날 아침 스타디움은 장례식장으로 돌변했으며 서독의 하이네만 대통령과 브런디지 IOC위원장이 장례식을 집전했다. 대회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브런디지 위원장은 "올림픽이 상업주의와 정치적 압력, 그리고 이제 범죄단체의 횡포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올림픽 경기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대회의 강행을 선언했다 (정기동, 1985).

2) 인도 뉴델리 아시안 경기대회 개회식장 소동

1982년 11월 19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안 경기대회시 '시크' 교도들이 개회식장 앞에서 불순구호 및 유인물을 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3) 아시안게임 직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폭탄테러

1986년 9월 14일에는 아시안 경기대회를 1주일 앞두고 김포공항 국제선 2층 청사 쓰레기통에 TNT 2~3파운드 가량의 은닉된 폭발물이 터져 전기공 등 4명이 사망하고 일반인 3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4) 서울올림픽 방해차원 대한항공 858기 폭탄테러

1987년 11월 29일에는 미얀마 안다만 상공을 비행하던 대한항공 858기가 비행기내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져 115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 사건은 제24회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5) 애틀란타 올림픽공원 폭탄테러

1996년 7월 27일 오전 1시 15분경(현지시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1백주년 공원내 'AT & T 올림픽 글로벌 빌리지' 공연장에서 수 천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록그룹의 공연이 진행되던중 공연무대의 조명타워 부근에서 종이팩에 포장되어 있던 폭발물이 폭발, 2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은 사제 파이프형 폭탄으로 못과 나사와 같은 파편들을 1백m까지 날려보낼 정도로 위력이 큰 것이었다. 동 테러사건은 경비당국이 애틀란타 올림픽 개회식 이틀전인 1996년 7월 17일 미국 TWA항공의 보잉747여객기가 이륙직후 폭발, 추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경비당국에서 약 2만5천명의 경찰관, 주방위군 등이 동원되어 애틀란타공원, 호텔, 경기시설주변 등에 엄중 경계태세를 펼쳐 테러방지에 강력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동 사건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발생한 최악의 올림픽 참사로 기록되었다.

6) 프랑스 월드컵 본선 인근 폭탄테러 미수

1997년 12월 4일 저녁(현지시간)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대회 본선 대진추첨이 있었던 마르에이유 벨로드롬 경기장 주변의 마자르그 지구 변전소에 자동타임 스위치를 장착한 시한폭탄을 사전에 발견했는데 이 폭발물이 폭발했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다.

7) 유럽프로축구 인근 주차장 폭탄테러

2002년 5월 1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부근 주차장에서 차량 1대가 폭발하는 등 마드리드에서 2건의 차량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장 인근 폭발사고는 유럽프로축구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준결승리그 2차전이 열리기 수시간 전 일어났다. 첫 폭발 당시 스타디움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차

장 유로파 타워 저층에서는 엄청난 양의 구름이 피어올랐으며 이후 옆에 세워진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탔다. 사고직후 테러조직인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 주최측 주요 대응사례

위의 국제스포츠행사의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려는 국가들은 국제테러조직이나 테러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스포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차원의 대테러활동 문제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스포츠행사시 테러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앞서 예시한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 기습테러사건 이후 급속히 확산, 관련대책 마련이 시도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각국은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테러 특공대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고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창설되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스포츠행사에 관한 안전활동을 대테러활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1)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는 1972년 이스라엘 선수촌기습사건이 발생한 뮌헨 올림픽 다음으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엄중한 경비체제로 공항, 경기장, 수송버스, 선수촌내 검문소 등에 1만 6천여명의 군인과 경관을 배치하였다. 그 중에는 여자 경찰관도 있어서 여자 선수촌이나 여자의 하물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동 대회는 철저하고도 삼엄한 경비로 테러사건 등 안전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너무나 경직된 올림픽이었다는 불평을 샀다 (정기동, 1985).

2) 올림픽대회

'84 LA올림픽대회는 조직위원회가 모든 선수단에게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LA시경·캘리포니아주 경찰·CIA·FBI 및 특수부대를 총망라한 거국적인 안전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 별다른 안전상의 사고 없이 치르는 효과를 거양하였다 (정기동, 1985).

3) 서울 올림픽대회

'88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올림픽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요시설 중 북한 및 불순분자의 테러목표로 예상되는 방송, 통신, 발전, 산업시설 등 220개 시설을 선정하여 외부로부터의 침투 및 태업 등 방지를 위한 완벽한 경비 및 보안대세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북한 또는 불순분자의 테러, 태업 등 위해책동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등 행사안전에 관한 만반의 대비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폭발물사고 대책강화, 협상팀 비상대기, 주요시설 목표분석 및 작전계획 수립, 외국 안전지원요원 滯韓 협조 등을 병행하였다. 서울올림픽은 5년여에 걸친 대회준비와 관계기관 요원들의 전문적·헌신적 업무처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한 안전활동을 수행한 국제스포츠행사로 기록되었다. 이는 '86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였고 행사유관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체제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용석, 2000).

4)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근대 올림픽 1백주년 기념대회를 겸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루어진 '96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서는 대회개막 50여일을 앞둔 시기부터 애틀랜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정부 당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하였으며 조직위측은 올림픽에 참가할 1만5천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취재팀들을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전적인 후원하에 '우산계획'(Umbrella Project)이라는 올림픽 경비계획안을 작성, 국방부(1만 4천여명), CIA·FBI(2천명), 연방·주소속 경찰 등 보안·공안요원이 총동원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약 5천만달러(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대테러 첨단장비를 가동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기간 중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국내 모든 대테러 유관기관요원 및 장비가 총동원, 전쟁에 준하는 경비체제를 마련, "사소한 소매치기 사건조차 한건 없는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앞서 언급한 1996. 7.27 올림픽 1백주년 공원내 폭탄테러사건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박용석, 2000; 주일엽, 2000).

5) 프랑스 월드컵대회

'98 프랑스 월드컵 대회는 공항·항만·철도역 등 주요지역에 대해 무장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활동을 강화하였고 정보기관은 1여년 전부터 대회기간 중 회교과격파에 의

한 테러에 대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수사당국은 독일·이탈리아·벨기에·스위스 등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테러 혐의자 100여명을 체포하였는데 벨기에에서는 행사방해를 기도하려던 GIA(알제리 무장회교그룹) 소속 테러혐의자 7명과 폭약·뇌관·수은 등 폭발물 재료를 압수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 4개국에선 검거된 테러혐의자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정밀조사를 통해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월드컵대회를 완벽하게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1998.5 EU 각국은 대테러 전산망을 구축, 성공적인 대회안전을 도모하였다 (박용석, 2000).

6) 韓·日 월드컵대회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韓日월드컵대회의 경우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이후 그것도 미국이 참가하는 첫 대규모 국제대회여서 테러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도의 테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월드컵안전대책통제본부로 하여금 국제공조를 통한 입체적인 테러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국제테러조직원 등 9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미 입국금지조치를 취했고 미 중앙정보국(CIA) 등 각국 정보기관과 연계해 대책을 강구했다. 각국 선수단과 국내외 귀빈 등은 이들 정보기관과 협조해 대회기간 중 24시간 밀착 보호하였으며 경찰은 경기기간 중 외국공관, 공항, 항만 및 주요시설에 3000여명의 안전요원을 파견,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였다. 특전사 707부대와 해군특수부대, 경찰특공대 등은 테러발생시 즉각 투입될 수 있게 항시 대기토록 했으며 10개 경기장에는 방공사격장비인 '미스트랄' 2기가 배치되고 경기시작 전후 반경 32km이내 상공에는 F-16 전투기의 초계비행이 있었다. 또한, 월 2회 한반도 상공을 감시해 온 주일미군 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대회기간에 횡수를 늘려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였으며 군은 경기장 단위로 지역사단장을 통합지휘관으로 임명해 통합작전을 펴도록 했고 경찰도 테러에 대비,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140억원을 투입했다. 폭발물 처리 무인로봇을 비롯, 생화학테러 방지를 위해 '생물학정찰차'와 KM9 제독차량이 개최도시에 배치되었고, 특히 최신형 '이동식 생화학 탐지장비'를 갖춘 미군 1개소대가 한국에 파견되었다. 경기장 난동에 대해 경찰은 홀리건 전담부대 40개 중대를 편성하고, 경기장에 경찰관과 기마경찰대 1500명을 투입하였으며 또 유럽 각국의 홀리건 전담 경찰관과 공조해 홀리건 감시조(spotter)를 운영하였다. 월드컵 대회기간 중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해 10개 유관부처가 '사이버 테러 대책반'을 운영했다 (언론 재편집).

V. 테러가 국제스포츠행사에 미치는 영향

국제스포츠행사는 행사를 개최하는 해당 국가의 국가적 행사이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는 행사이다. 이를 위해 행사주최 국가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행사의 유치, 준비, 그리고 개최 및 종료시까지 범국가적 역량을 경주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행사개최는 행사 그 자체를 넘어 정치적·외교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적 관심이 결집되는 국제스포츠행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조직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행사주최 국가 및 여타 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행사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사전후 또는 행사중 상당규모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넘어서게 된다.

국제스포츠행사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최국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이다. 주최국은 국제스포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당기간 동안 행사안전활동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주최국의 기본적인 능력 과 제도 자체를 의심받게 되고 나아가 사태해결 과정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 국가가 받는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하다고 하겠다. 수 조원을 들여 경기장을 신축하고 엄청난 홍보비를 투입하여 세계 각 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개최국가의 노력은 무산되고 개최국가가 안전국가의 이미지 퇴색 및 테러 가능국가로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해 입게되는 경제적 타격은 실로 심각하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세계 각 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지난 2002년 10.12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사건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어 발생한 필리핀 폭탄테러 (2002.10.20)로 인해 필리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제스포츠행사 자체의 무산 또는 의의 퇴색이다. 행사전 또는 행사진행 중 해당 국가에서 또는 해당국가와 연계된 사안과 관련해 가공할 위력의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제스포츠행사 참가예정국가들의 불참 또는 행사진행 중 포기가 예상된다.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한 국제스포츠행사이더라도 행사의 원만한 진행과 참가선수·임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상존할 경우 그 누구도 해당 국제스포츠행사를 환영하지 않게 된다.

셋째, 유사 국제스포츠테러의 모방사례 지속이다. 테러조직은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관

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데 국제스포츠행사 주최국이나 여타 우방국들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거나 일부분을 수용시키는 등의 성공적인 테러를 달성했을 경우 여타 테러조직들의 무분별, 무차별적 테러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VI. 대 책

1. 법적 대응체제 구축

9.11 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 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정보원 주도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사회단체의 움직임과 일부 정당의 동조 움직임에 따라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입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보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확고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은 수사권 없이 순수하게 정보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남는 한편, 대테러 업무를 포함하는 국가보안업무를 종합 조정, 통괄하면서 국가 대테러 업무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의 테러방지법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장기봉, 2001: 111-117).

2. 제도적 장치 강구

미국은 2002. 10.15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11.25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부처 신설을 확정하였다. 이는 1947년 국방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공통 부서로서 2003.3.1 정식 출범을 함으로서 22개 연방 기관을 합쳐 장관 아래 차관급만 분야별로 14명이나 되며 17만 명의 직원과 400억 달러의 연간 예산을 쓰는 국방부 다음으로 거대한 조직으로 탄생하였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후 백악관에 국토안보국을 신설하였는데 테러와 관련된 업무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테러정보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교

훈에 따라 신설된 것이 국토안보국이며 이를 정부 부처 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이 국토안보부다.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이민귀화국(INS), 세관 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의 연방 법집행기관이었던 비밀경호대 (Secret Service) 등 주요 기관이 합류하여 대테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등 미국의 국가 부서 체제 마저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로 국가적 대테러 기능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대테러 기능은 1982.1.21 점증하는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뿐만 아니라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및 월드컵 대회 등 국제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비상설기관으로 편성하였다. 국가대테러위원회는 국가 대테러 정책의 심의·결정·국가안보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결정·기타 대테러 활동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수행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판세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다.(최윤수, 1999) 또한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대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으로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인 국가대테러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실질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적 영향력의 범위 아래서 대테러, 대북 업무보다는 정치적인 국내 정보상황에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CIA처럼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남고 대테러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사권을 확보하는 한편 대테러 대응력을 가진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대테러 대응력이라 함은 협상팀 및 군·경 특공대와 지원팀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FBI가 자체의 특공부대를 보유하여 대테러 작전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장기봉, 2001: 113).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병력, 기능을 흡수하여 신설되는 대테러 전담부서에서 운용하면서 국제스포츠행사, 또는 ASEM과 같은 국제행사 전담 등 순수 대테러 부대로 운용하는 한편 경찰청 산하 각 지방 경찰청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찰특공대는 순수한 치안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국가대테러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또한 경찰에서도 경찰특공대장 직책이 진급을 위해 거

처가는 자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현 실정을 타파하여 경찰 임용부터 대테러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적인 대테러 업무 전담이 어렵다면 군에서 대테러 업무의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경찰특공대장의 직책은 대테러 전문가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스포츠행사 및 테러의 개념과 국제테러정세 분석, 그리고 국제스포츠행사와 관련해 발생한 각종 테러사례와 각 국의 대응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민족·지역·종교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질서는 과거 동서 이념 대결에서 테러와 대테러 국가로 양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테러 양상 역시 폭발물테러 등 기존의 고전적 테러뿐만 아니라 화생방테러,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도 발생하고 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양상은 실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형태의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가 과격화, 대형화, 극대화되는 데에는 국가 및 대중들의 테러불감증의 확산, 국제사회의 테러범에 대한 강경 조치, 소수화 되고 극단적 사상을 갖춘 테러조직들의 증가, 냉전이후 테러자원의 조달용이 등이 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세계 각 국이 자국의 주요 건물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면서 이들 장소에 대한 공격이 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테러 단체들은 공격이 쉬운 연성 목표물(Soft Target)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스포츠행사의 정치적·외교적 요소를 이용한 국제테러조직이나 국내 범죄단체들의 테러시도는 뮌헨 올림픽 선수촌 기습테러사건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국제스포츠행사는 美 9.11테러 이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적, 극단적 테러의 손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국제스포츠행사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주최국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 행사 자체의 무산 또는 의의 퇴색, 유사 국제스포츠테러의 모방사례 지속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 기습테러사건 이후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시 국가차원의 대테러 대책을 수립하는 외에 국제적 공조를 통한 테러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제스포츠행사와 테러와의 연계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차원의 대테러 활동 문제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스포츠행사는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적·외교적 행사로 그 성공적인 개최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 목적은 정치적·외교적인 접근을 떠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에 위한 국가의 노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이다.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한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면서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타 사건에 의한 것 보다 결과는 더욱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인의 축제로서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통한 세계평화를 증진한다는 스포츠의 목적이 유린될 뿐만 아니라 개최 국가의 안전관련 신뢰도가 추락함으로써 해당국가에 입게되는 경제적 타격은 실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11월에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APEC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리핀 테러사건 이후 필리핀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치안 안전이 확보되었으니 제발 각국의 관광객과 경제인들은 안심해달라고 호소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교적 테러발생 안전국가로서 여겨졌으나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서 이제는 어느 나라도 국제테러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 대응책 또한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현재까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스포츠행사 때마다 TASK 포스(Task Force) 형식으로 기구를 편성하고 임무 완성 후에는 후속 기능 없이 해체되는 실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대테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법적·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로 법적 대응체제의 구축이다. 국가 대테러 업무를 전담할 상설 부서의 신설과 관련 법규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후속 연구가 시급히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구축이다. 국가위기관리모델 구축과 더불어 국가적 테러사건으로 인한 국가위기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 등이 필요하며 국가 대테러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미국의 FBI처럼 대테러 부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은 무차별적인 테러의 시대이다. 어느 세계, 어느 누구도 테러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련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1). 경찰백서. p 276.
- 고두화. (1992). 국제테러리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0-57.
- 교통개발연구원. (1994). 국제회의센터 건립방안.
- 국가정보원. (2002). 홈페이지 (www.nis.go.kr).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3). 세계의 테러리즘 추이와 대책실태. PP 17-23.
- 권오인. (1988). 한국에 있어서 스포츠의 외교적 기능 분석. PP 5-13.
- 김찬규a. (1987). 국제인도법상 테러리즘의 금지. 인도법논총 제7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p7
- 김찬규b. (1999). 국제테러의 유형변화. 대테러연구 제16집. 경찰청. PP 29-41.
- 박용석. (2000). 대규모 국제행사시 요인경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훈. (2000). 국제회의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철. (2002). 21세기 신종테러 양상과 월드컵 대테러 방안. 대테러연구 제24집. 경찰청. PP 73-99.
- 서병세. (1998). 올림픽의 실상과 변혁.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경모 · 김영순. (1992). 국제회의 실무기획. p 18.
- 양희철. (1998). 해상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 유정남. (2000). 국제회의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래. (1998). 요인테러의 실태분석에 의한 경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장춘. (1997). 최신관광자원학. 서울 : 대왕사. PP 158-160.
- 임번장. (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 동화문화사.
- 장기봉. (2001).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117
- 정기동. (1985). 올림픽행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근. (1992).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원. PP 81-88.
- 정호선. (1999). 국제회의 행사의 유치 증진을 위한 방안과 그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7.

- 조광래, 주일엽. (200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001년 제11호)
- 주일엽 (1999). 효율적 경호를 위한 시큐리티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한철. (2001). 테러의 양상과 방지대책. 수사연구지(2001년 11월호). P16.
- 최승이 · 한광중. (1995). 국제회의산업론. 서울 : 백산출판사. p 19.
- 행정자치부. (1994). 정부의전편람. PP 198-199.
- David F. Forte. (1986). Terror and Terrorism: There is Difference.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PP 39-51.
- Peter St. John. (1981) Analysis and response of a decade of terrorism. Int Perspectives. PP 2-3.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Terrorism on th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By Cho, Kwang Ra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are no longer simple sports events. They are kind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vents which are focused on international interests and they have to be held successfully to achieve their goal. Recently their economic effect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urposes. Almost all countries are doing their best to hos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their own countries.

But if there are terrorists who are to attack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o improve friendship between nations and the peace of all mankind will be seriously damaged. Also host country will be seriously damaged politically,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This article examines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ism after 9.11 and analyzes the recent world terrorism situations and furthermore proposes legal and systemic countermeasures of our country to concentrate nation's abilities to prevent these kinds of sports terrorism.